

미사의 개요

개회식

입당송

입당은 성전에 들어감을 의미며, 미사의 시작을 선포하는 양식이 된다. 이는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야훼 하느님께 바치는 제사가 시작됨을 백성들에게 알리려 하는 것이며, 교우들의 마음을 전례 시기와 축제의 신비로 인도하고 사제와 봉사자들의 행렬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미사는 제사"라는 것은 단순한 종교 의식뿐이 아니라 하느님께 드리는 제사요, 본질을 갖춘 제사란 뜻이다.

인사

사제의 인사는 4가지 양식이 있다. 여기서 모든 기도문의 공통점은 사제가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미사에 참석하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 축복을 내리고 있으며 이미 받은 세례를 상기시키는 것이다. 이는 다시 사제를 축복하는 백성들의 응답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하느님께 바칠 거룩한 미사 성제에 초대받아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정결한 마음으로 참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신약성서에 사도들의 파견에 있어 "모든 이들에게 축복을 빌어 주어라 그들이 받을 자격이 있는 자이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못한 자라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라는 구절에서와 같이 경건하게 참여하거나 올바른 준비가 되지 못한 이들은(미고해자, 대죄 소지자)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참회

참회에는 3가지 양식이 있다. 여기에서의 공통점은 모두가 미사를 합당하게 봉헌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반성하는 양식이라는 것이다. 인사에서도 말했지만 평화의 인사를 합당하게 받지 못하는 자들이 스스로의 죄를 뉘우치며 진심으로 통회하여 합당한 미사 성제에 참여하기 위한 양식이다. 이는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파스카의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 정결례식을 거치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우리의 죄에 대해 용서를 청하는 것이

다.

흔히 우리는 고백성사를 통해서만 죄의 용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사의 참회 예식에서도 같은 은혜를 받는다. 미사는 가장 완전한 기도이기에 그 가운데서 행해지는 참회 예식도 가장 완전한 의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고백성사를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성체를 모시는 예식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사후 고백성사를 통해서 하느님과 화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느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사제는 신자들의 통회를 이끌고 신자들의 통회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들의 죄가 사해될 수 있도록 사죄경을 외우는 것으로 참회 예식은 끝이 난다.

대영광송

대영광송은 말 그대로 커다란 찬양의 노래인 것이다.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께 영광을 드리는 성시로서, 베들레헴에서 천사들이 구세주의 탄생을 찬미하던 노래로 시작되었다. 때문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비를 청하는 참회에 대한 야훼 하느님의 용서에 대한 감사의 노래이며 그분의 영광과 위엄을 찬미하며, 우리의 죄를 위해 인간으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성자이신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 대영광송은 대림시기와 사순시기를 제외한 모든 주일, 대축일, 축일 및 지역의 성대한 축제에는 서서 대영광송을 모두 함께 또는 번갈아 노래하거나 외운다.

본기도(오늘 미사의 기도)

그날의 미사의 기도를 바치는데 평일과 기념일, 축일, 대축일마다 다르며 고유 기도가 있기도 하다. 이것은 미사 성체에 초대받아 모두가 죄를 참회하고 용서받아 미사에 합당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기에 본격적으로 미사 성체를 시작하는 것이다. 때문에 참석한 이들은 '아멘'으로 환호하는 것이다.

말씀의 전례

말씀의 전례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조상들이 에집트를 탈출한 것을 기억하며, 이것이 야훼 하느님의 구원 업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구체적으로 자기들을 선택하신 하느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돌보시고 이끄셨는지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과월절에 모두가 모여 앉아 과월절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기억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때로는 양피지로 된 두루말이에 적혀진 성서를 읽고 찬미하곤 하였다. 이때의 형식은 가장 나이가 많은 연장자(원로)가 자신의 집단에 있는 어린아이에게 과거 영광된 사건을 옛날이야기 식으로 말하면서 모여 있는 모든 회중에게 기억(아남네시스)하게 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가 회당에서 두루말이로 된 양피지 성서를 읽고 자신의 구원 업적에 따른 성서의 예언이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것, 제자들이 전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에 관하여 전하며, 때로는 이를 문서로서 남기도 하는 것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제1독서는 구약에 나타나는 말씀을 봉독하는 것이다. 이는 구약안에 나타나는 하느님의 구원 사업을 다시 되새기는데 그 의미가 있으며, 독서 후의 화답송은 이스라엘 민족이 야훼 하느님의 구원 사업을 떠올리고 나서 그것을 찬양하는 데서 시작된 의식이다. 얼마 전까지는 화답송을 찬가송(응송)이라고 했었는데 이는 중세 시대 교회 건물이 보통 2층 구조로 되어 있어 성가대가 주로 2층에 자리잡고 있었는데 이곳에서 찬양의 노래를 한다고 해서 찬가송이라고 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의식이 통용되지 않고 신자들이 주의 말씀에 화답한다는 의미에서 화답송이라고 하고 있다. 화답송은 주로 시편을 읊거나 노래하는데 이는 시편의 내용들이 과거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느님의 업적과 위엄에 대한 찬양과 청원, 통곡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제2독서는 신약에 나타나는 말씀을 봉독하는 것이다(4대복음서 외). 이는 신약안에 나타나는 하느님의 구원 사업을 다시 되새기는데 그 의미가 있다. 1,2독서는 이처럼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봉독함으로써 하느님의 구원 사업이 신약과 구약에 모두 나타나고 있으며, 구약 안에서의 하느님의 구원 사업이 신약의 예수그리스도로 이어져 완성을 가져오는 것이며, 이것이 결코 단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복음 환호성 또는 알렐루야

이것은 1,2독서에 따른 감사와 이제 이어질 복음에 대한 경건한 준비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제사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업적을 새김으로서 완전한 구원 사업에 동참하기 위함이라고도 할 수 있다. 때문에 알렐루야라는 외침은 찬양과 기쁨의 환호성인 것이다. 이 알렐루야는 사순 시기를 제외하고는 항상 노래로 봉헌된다.

복음

1,2독서를 신자들이 봉독하는 것과는 달리 복음은 사제(또는 부제)가 봉독한다. 사제는 복음의 봉독에 앞서 "전능하신 하느님, 제 마음과 입을 깨끗하게 하시어, 합당하게 주님의 거룩한 복음을 선포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한다. 이는 복음 즉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어떠한 잘못된 해석이나 오류 없이 올바르게 전달되도록 기원하는 것이다.

사제는 기도를 마치고 신자들에게 주께서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신자들은 사제 또한 함께 하기를 청한다. 이는 올바로 예수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면 복음서안에서 전하는 말씀들이 제대로 전달될 수 없으며,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사제가 ' **가 전하는 거룩한 복음입니다' 라고 하면 이마와 입술과 가슴에 십자성호를 긋는다. 이는 머리로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을 생각하고 입술로서 받아들인 바를 전하며, 가슴으로 새긴다는 의미이다. 결국 우리는 단순히 복음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은 바를 이웃에게 전하며, 이를 가슴 깊이 간직하는 것이야말로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복음 봉독이 끝나면 1,2독서와는 다르게 '하느님 감사합니다'가 아닌 '그리스도님 찬미

니다'라고 하는데 이는 1,2독서가 하느님의 위대한 업적에 대해 말하는 반면 복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2독서가 신약의 그리스도의 업적을 전하고 있으며, 복음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느님의 뜻과 어긋남이 없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복음서와는 달리 인간의 입장에서 받아들인 부분을 말하고 있는 다른 성서들과는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강론

강론은 모든 주일과 의무 축일에는 하게 되어 있으며, 그 밖의 날에도 강론을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강론 후 잠시 묵상을 하는 것이 좋다.

강론은 주로 그날의 복음에 따른 내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도록 하며, 실생활과 연결하여 신앙인으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신앙고백

신앙고백은 구약과 신약에 이어져 내려오는 신앙의 총 고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의 신앙을 하나의 짧은 기도문으로 축약시켜 놓은 것이다. 이것은 크게 니체아 콘스탄티노플 신경과 사도신경으로 구분되는데 두가지 신경이 내용 면에서는 차이가 없으며 니체아 공의회 시대에는 주로 니체아 신경을 사용하였으며,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는 사도신경을 주로 하고 있다.

이 신앙고백은 독서와 복음으로 전해 듣고 기억해 낸 사건들을 믿음으로 간직하며, 야훼 하느님과 성령을 믿으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이다.

신자들의 기도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 고백된 하느님께 기도하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청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미사가 하느님께 드리는 제사이며, 이것을 주관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이 제사를 받아들여시는 하느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아들여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이며 미사 성제의 주관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도의 후렴에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에 대한 오해도 많은데 여기서 {주}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닌 하느님을 말하는 것이다. 평소에도 이 호칭의 문제에 있어서 하느님을 {주}라고 하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호칭하는 것이 옳다. "주님"이라는 호칭은 하느님을 말하며, "그리스도"는 구세주, 임마누엘을 의미한다. 성서 안에서 예수를 주님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예수가 하느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다.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말하는 삼위일체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는 것이다.

이때 보편 지향 기도는 로마 미사 전례서 총지침 45-47항의 규정을 따른다. 보편 지향 기도는 ①교회 ②위정자와 세상 구원 ③도움이 필요한 이들 ④지역 공동체를 위하여 한다. 또한 신자들의 기도는 신자들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공동체적인 성격을 띠어야 한다.

성찬의 전례

봉헌

흔히 봉헌이라고 하면 제물 봉헌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제물 봉헌은 미사중 우리 마음의 한 표현 양식일 뿐이다. 그보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에 대한 용서를 청하고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 몸과 피를 제물로 내어주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때문에 봉헌 성가를 부르며, 제물 봉헌을 할 때 사제는 빵과 포도주를 축성하는 예식을 청한다. 참고적으로 봉헌 성가를 부르지 않는 경우는 신자들과 함께 큰소리로 기도문을 외우게 된다.

* 온 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 하느님, 길이 찬미받으소서

예물 기도

보통 예물기도는 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나 주송자 혼자서 하는 경우가 많다.

성찬기도

성찬기도에는 4가지 양식이 있으며, 시기와 축일에 따라서 각각의 양식을 선택해서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본당에서는 주로 2양식을 선택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2양식에 대해 설명하기로 하겠다.

** 1양식은 어떤 미사 때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2양식은 주간의 평일과 특수한 환경(시간이 촉박할 때나, 어린이의 미사)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3양식은 특별히 주일과 축일에 사용함이 좋다. 그리고 4양식은 구원의 역사를 종합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감사송

감사송이 시작되는 동안 우리는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지적할 것이 한가지가 있다. 그것은 과연 미사성제중 빵과 포도주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모되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대부분 빵과 포도주가 들려져서 신자들에게 보여주는 시기에 이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빵과 포도주가 변모되는 시점은 SACTUS(거룩하시다) 후에 주례 사제가 "주는 참으로 거룩하시니, 성신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하며 손을 들어

축복하며, 십자 성호를 긋는 시점이다.

그러므로 이미 변모된 상태에서 거양되는 성체와 성혈을 우리는 공경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신앙의 신비를 말하며, 우리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다.

성찬식

주의 기도

주의 기도는 사도신경과 더불어 우리 신앙의 핵심적 고백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에 기도에 대한 설명은 세세한 내용은 너무 복잡하고 어렵기에 여기서는 생략하겠다.

평화 예식

평화 예식은 글자 그대로 서로에게 평화를 기원하며 주의 뜻에 따라 살고자 서로가 독려하는 의미가 있다. 그렇기에 미사중 평화의 인사는 진정으로 서로에게 평화를 기원하는 예식으로서 이루어져야 한다. 일주일 동안 어찌 지냈는지 안부를 묻고 그 동안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기뻐하는 예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평화의 축복은 우리 신자들, 다시 말해 인간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평화의 축복이 천주의 어린양인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서 보다 완전한 축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증거 한다.

이런 의미에서 "천주의 어린양 . . ."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의 축복이 있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이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있다. 첫째, 죄를 사하시는 그분에게서 죄를 용서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죄에 대한 진정한 통회와 함께 그분에게서 죄를 용서 받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 삼아 죄의 상태에서 미사중 영성체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평화의 초대에 응답할 자격이 없기에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영성체

이제 험난한길을 지나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부분으로 도달하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하게 된다.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라는 주례사제의 선언에 나는 미천한 이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주님의 커다란 은총으로 "제가 곧 나으리이다."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영성체송

영성체를 모시는 기쁨을 기도로 바치고 줄을 지어 나아가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모신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서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넘어가고자 한다. 그것은 주례사제가 성체를 나누어주면서 '그리스도의 몸' 이라고 말할 때 '아멘' 이라고

대답하는 부분이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거나 작은 목소리로 답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이 부분이야 말로 커다랗게 대답해야 할 부분이다. 짧은 대화를 보다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주례사제가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을 믿으신다면 받아 모셔서 영혼의 치유를 얻으십시오" 여기에 신자들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때문에 구원의 성사에 초대되고 그분의 몸과 피를 나누어 먹게 된 것을 기뻐하며 커다란 소리로 "아멘"하고 응답해야 하는 것이다.

참고 삼아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만을 모시는 것을 단형 영성체라 하고 몸과 피를 모두 모시는 것을 양형 영성체라고 한다.

영성체 후 기도

성체를 받아 모신 이들이 이를 잠시 묵상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것이다. 이제 기쁨의 잔치는 서서히 정리되어 가는 것이다.

폐회식

폐회식은 이제 빠스카 축제는 끝이 났으며, 돌아가 주와 함께 기쁨의 나날을 보내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때문에 사제는 신자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것이다. 이것이 특별한 날이나 기회에는 "장엄축복"형식이나 "백성을 위한 기도"를 하기도 한다.

축복이 끝난 후에는 이것이 우리들 사이에서 끝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 전해야 하는 것임을 주지시켜 준다. 즉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라고 선포하며, 이 기쁜 축제에 믿지 않는, 잘 모르는 이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서 앞으로 함께 해 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실생활에서 그대로 살아가기를 권고하는 것이다.

미사예식상의 상식

◎ 참회예식때 대죄가 아닌 소죄나 미소한 죄가 있을때는 이 예절에서 죄를 누우치고 성체를 영함으로써 죄의 사람을 받을 수 있다.

◎ 독서는 평일에는 하나밖에 없지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주일과 대축일에는 두개의 독서를 읽는다. 그리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하느님의 말씀의 풍성한 식탁을 마련하도록 신자들에게 성경의 보고를 널리 개방하여 성경의 중요한 부분을 일정한 연수내에 회중들에게 낭독해 주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3년을 주기로 나누어 놓았다.

◎ 예물 준비시 사제는 성작에 포주주와 물을 섞는데 이것의 상징적인 뜻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회행을 한데 바쳐 하느님께 바친다는 뜻이며, 예수님의 능방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을 연상시키기 위함이기도 하다.

◎ 거양성체시 사제가 성체와 성혈을 높이 드는 것은 신자들로 하여금 성체와 성혈을 흠숭하게 하기 위함이며, 복사가 종을 치는 것은 신자드의 온 정신을 제대 위로 집중시

키기 위함이다.

◎ 성체를 쪼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죽음을 상징하고, 한 부분을 떼어 성혈에 넣는 것은 십자가상의 죽음으로 갈라졌던 몸과 피가 합침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때 우리가 성체를 모심은 그리스도와 합몸이 됨을 의미한다.

◎ 초대 교회에서는 신자들도 성체와 성혈을 다 영했다. 그러나 신학이 발전함에 따라 빵과 포도주에 각각 완전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현존하심을 인정하면서 1415년 콘스탄츠 공의회에서는 신자들의 성혈의 영함을 금했다.

◎ 마침예식에서 사제의 강복: 옛날에는 주교님들이 강복을 주셨는데, 그때에는 되장하시면서 아무 말도 없이 십자표로만 강복을 주셨다. 그 후 십자표와 함께 강복의 말을 삼입하게 되었다. 그리고 사제들이 미사 후에 강복을 주게 된 것은 9세기 부터이다. 이러한 강복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축복을 주신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다.

미사에 관련된 참고 사항

1. 제대초

제대에는 적어도 2개의 촛불을 켜 놓는다.

초의 수는 평일 또는 기념일인 경우에는 좌우 1개씩 총 2개, 축일인 경우에는 좌우 2개씩 총 4개, 대축일 경우에는 좌우 3개씩 총 6개, 주교 집전 미사일 경우에는 주교초를 포함하여 총 7개의 초를 놓는다.

2. 향의 사용

어떤 형태의 미사이나 향을 사용할 수 있다. 향의 의미는 그리스도께 대한 존경과 환영의 의미, 구약시대의 향의 사용은 제대 정화,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게 함. 향의 연기와 함께 우리의 기도가 하느님 대전에 올라감을 뜻한다.

이것을 미사중에는 입당 행렬때, 미사 시작때, 복음 낭독때, 제물 봉헌 예식때에 제물과 제단, 사제 그리고 교우들에게 향을 드리며, 성체 축성후 성체를 들어 보일 때와 성혈을

들어 보일 때에도 향을 드릴 수 있다.

3. 사제복장에 관련된 것

◎ 수단(Soutane) : 성직자들이 평상시 입는 옷으로, 중세의 코트지방에서 유래되었다. 수단은 자기의 온 몸을 가리우기 때문에 하느님과 교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자신을 바치고 속세에서는 죽었다는 표시이기도 하다. 교황은 백색, 추기경은 홍색, 주교는 자색, 사제는 흑색을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 모관(Mitra) : 모관은 미사 때 성직자들이 자기의 권위와 지위를 표시하기 위하여 쓰는 특수한 사각 모자로서, 일반 성직자는 흑색, 추기경은 홍색 모관을 쓰는데, 오늘날 사제들은 사용하지 않는다.

◎ 지팡이(Baculus) : 주교의 권위를 상징하는 도구

◎ 깡마(Cappa) : 성직자들이 특별한 의식 때 입는 것으로 외투를 의식에 사용함을 써 전례복으로 된 것인데 라틴어인 깡마는 8세기경 외투에 붙어 있던 모자의 이름이었다. 행렬과 성체강복, 축성때 제의 대신에 사용된다.

◎ 어깨보(Humirale) : 축제때 목도리를 두르고 다니던 것에서 유래했다. 성체강복과 성체를 옮길 때 사용하고 있다.

◎ 제의 :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가 장백의 위에 입는 전례복으로 로마인들의 외투에서 유래했는데 4세기부터 로마 원로들이 집회에 입던 제복을 성직자들에게 도입하여 미사때 사용하게 되었다. 초대 교회에서는 백색 한가지로 시작하였으며 희랍식과 로마식이 있다.

① 백색 - 영광, 환희, 결백, 기쁨을 상징하는 것으로 예수 부활축일, 성모축일, 천상축일, 치명하지 않은 성인들의 축일, 성당축일에 상용한다.

② 자색 - 통회, 보속을 상징하는 것으로 대림시기, 제의 수요일부터 부활 전야까지 사용한다.

③ 홍색 - 불과 피, 열정, 사랑을 상징하는 것으로 성신 강림 대축일, 치명자들의 축일, 십자가 현양축일에 사용한다.

④ 흑색 - 죽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연미사, 장례미사에 사용한다.

⑤ 금색 - 미사를 성대하게 거행할때 백색, 홍색, 녹색의 제의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⑥ 녹색 - 생명, 희망을 상징하는 것으로 연중 제1주일부터 사순절 전까지, 그리고 성신강림후부터 대림 첫주일 전까지 사용한다.

⑦ 장미색 - 대림3주일과 사순4주일에 사용하는 것으로 이 시기의 엄한 고행중에서 성탄과 부활의 서광을 앞두고, 조금 기뻐하며 휴식하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 기쁨이 완전하지 못하므로 자색과 백색의 중간색을 사용하는 것이다.

4. 미사와 관련된 것

◎ 성석(Reliquiae) : 성인이나 복자의 유골을 모신 돌판으로 대리석으로 흔히 되어 있으며, 제대 중앙에 놓게 되며, 그 위에 성체포와 더불어 미사봉헌에 사용되는 거룩한 기물들을 놓게 된다. 이것은 로마 박해시대 때에 박해로 순교하신 치명자들을 까따꿈바에 묻고 그 위에서 미사를 거행하기 시작하면서 유래한 것이다.

◎ 성작(Calix) : 성작은 제구중의 하나로, 성혈을 담는 매우 귀중하게 사용되는 그릇이며, 이것은 금이나 은으로 만드는 것이 원칙이며, 적어도 안쪽의 부분은 도금한 것이어야 한다.

◎ 성합(Ciborium) : 축성한 성체를 모셔두는 그릇으로 성작과 같은 재료로 되어있으며, 일반 신자들이 만지는 것을 금하고 있다.

성시간의 유래와 정의

성시간이란 우리를 위하여 당신 몸을 바치셔서 인간을 모든 죄악에서 건져 내시고, 깨끗이 씻어 주신 그리스도의 성심께 속죄와 희생과 위로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다. 예수 성심에 대한 공경은 초대 교회 때부터 행하여져 왔으며, 특히 성녀 말가리따 마리아 알라콕 수녀에게 발현하신 성심을 통해 당시까지 개인적이며 지엽적으로 행해지던 성심 공경은 이제 세상 어디서나 누구든지 성심께 사랑과 봉사, 기도와 위로를 바칠 수 있게 된

다. 어느날 말가리따 성녀께서 기도하고 계실때에 성녀께 살아 움직이는 성심을 보이시며 여러 가지 공경행위를 명하셨는데, 그 중에서 성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첫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밤, 내가 겪은 극심한 고통에 너를 참여시키겠다. 밤 11시30분에서 12시30분까지 한시간 동안 나와 함께 깨어서 성부의 의노를 풀어 드리고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보속하며 성시간을 지키도록 하여라"하고 하신 말씀이 지금의 성시간을 하게 된 유래이다. 교황 비오8세는 1829년 성시간을 허락하고 교황 그레고리오 16세도 성시간회를 조직하고 교황 비오 9세도 이를 장려 하였다. 성시간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경외심과 사죄와 보속이 그 근본 정신인데, 우리가 예수 성심을 공경하는 이유는 예수 성심이 최후에는 승리하시며 전 세계에 하느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사실 때문이다. 성시간은 죽음의 고통에서 고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한시간동안을 지내는 것인데 단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다. 또한 장소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

교회 전례란?

전례란 희랍어 '리틀리아(Liturgia)'에서 유래한 말로 [공적의무] 또는 [공적인 일]이란 뜻이고, 교회에서는 "교회의 머리아신 우리 구세주께서 천상 성부께 드리는 공적 예배이며,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단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하신 성부께 드리는 공적 예배"라고 풀이한다.

따라서 전례가 의미하는 것은 사제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서 활동하실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그분을 통하여, 그분 안에서 하느님을 찬미하고 공경하며, 세상에 구원의 은혜를 가져오는 것이며 인간의 영혼을 초자연적 생명과 거룩함으로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플 전례는 신자들이 생활로써 그리스도의 신비와 참 교회의 본질을 다른이에게 드러내 보이고 명시함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

일년의 전례 생활

일년간의 시기들을 자연환경에 따른 4계절이라는 개념 외에 전례시기라는 구분을 하고

있다. 인생의 참 의미에 구원을 주신 구세주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시기(4주)와 성탄시기, 그리고 고통과 번뇌의 뜻과 죽음과 부활의 뜻으로 삶의 진상을 생각게 하는 사순시기(5주)와 부활시기(7주)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이며 선물인 올바른 정신을 받아들이는 성령강림시기와 연중시기(34주)로 되어 있다.

대림시기 - 성탄시기 - 연중시기 - 사순시기 - 부활시기 - 연중시기(성령강림시기)

성사

우리들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상징들을 사용한다. 교통신호로부터 시작하여 문자, 언어, 예의 범절, 행동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의 생활 안에는 수 많은 상징들이 있다. 이런 상징들은 자기의 뜻을 상대방에게 정확히 전달하려는 뜻에서 생겨난 것들이다. 또한 볼 수 없는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상징들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인간이 하느님을 알고 믿고 따름에도 이런 표시, 상징 등이 있다.

하느님께서도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하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접근해 오심으로써 사랑을 실감하며 은총을 느끼게 하신다. 이처럼 인간이 하느님을 만날 수 있고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실감할 수 있는 방법과 표징들이 바로 '성사' 이다.

7성사

한 어린이가 성장하여 어른이 되기까지는 낳고, 먹여 주고, 돌보아 주고, 교육을 시켜야 하는 부모님이 필요하듯이 우리들이 하느님이 자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돌보심이 필요하다. 이런 돌보심이 바로 7성사 이다. 즉 우리가 결정적 계기에 거룩한 의미를 지닌형식을 받아 하느님의 은총으로 구원되고 새로운 인간으로 거룩하게 성장되는 방법들인 것이다.

"신도들은 성사(세례성사)를 받음으로써 교회에 결합되고 그리스도교적 예배를 드릴수

있는 인호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재생하였기에 교회를 통하여 하느님께 받은 신앙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해야 하는 것이다. 견진성사로 신도들은 더욱 완전히 교회에 결합되며 성신의 특별한 능력을 받아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서 말과 행동으로 신앙을 전파하며 옹호할, 보다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된다.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의 원천이요 절정인 성체의 제사(성체성사)에 참여함으로써 신도들은 신적희생을 하느님께 바치며 자신을 또한 함께 봉헌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제사 봉헌에 있어서나 성체배령에 있어서나 모든 신도들이 같은 방법은 아니고 각기 고유한 방법으로 전례행위 중에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또한 성찬 때에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모심으로써 신도들은 하느님 백성의 일치를 구체저그로 표현하는 것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 성사로써 하느님 백성의 일치가 적절히 표시되고 기묘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고백성사를 받는 신도들은 하느님께 끼친 모욕의 용서를 자비로우신 하느님께로부터 받으며, 동시에 범죄로 상처를 입었던 교회, 사랑과 모범과 가도로써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노력하는 교회와 다시 화해하는 것이다. 병자들에게 성유(병자성사)를 바르는 사제들의 기도로써 온 교회는 병자들을 수난하시고 현양되신 주님께 맡겨드리며, 그들의 병고를 덜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도록 청하며, 또 병자들도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에 자유로이 결합시켜, 하느님 백성의 선익에 기여하도록 권하는 것이다. 또 신도들 가운데서 선발되어 신품성사를 받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말씀과 은총으로 교회를 사목하도록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정되는 것이다.

끝으로 그리스도교 신자 부부는 혼인성사로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일치와 결실 풍부한 사랑의 신비를 표시하고 거기에 참여하며 이 혼인성사의 힘으로 부부 생활과 자녀 출산과 그 양육을 통해서 서로 성덕에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니, 그들은 하느님의 백성 가운데서 그들의신분과 역할에 고유한 은혜를 받고 있다. 이혼인에서 가정이 형성되고, 가정에서 인간사회의 새 시민들이 탄생하며 그들은 하느님의 백성을 세세에 영속시키기 위하여 세례를 받음으로써 당신의 은총으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 혼인 무효

1. 연령장애

남자는 만 16세, 여자는 만 14세 이전의 혼인은 무효다.(우리나라 민법 남자18세 여자16세)

2. 성 불능 장애

결혼하기 전에 발생한 성 불능이 상대적이든 절대적이든, 남자의 경우든, 여자의 경우든 성 기관의 불능이든 성 기능의 불능이든 간에 그 장애가 영구적인 경우의 혼인은 무효다. 이 장애는 관면을 받지 못한다.

3. 혼인 유대 존속 장애

신자든 비신자든 합법적으로 결혼을 했을 경우 이 혼인 유대가 존속하는 한, 다른 사람과 혼인할 수 없다. 바오로 신앙의 특전인 경우가 아니면 관면되지 않는다.

4. 타종교 장애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 혹은 가톨릭 교회에 받아들여진 사람(개종자)이 비신자와 혼인을 하면 무효이다. 단 본인의 신앙과 자녀의 종교 교육이 보장될 경우 관면을 받을 수 있다.

5. 서품 장애

거룩한 품을 받은 사람(부제, 사제, 주교)은 유효한 혼인을 할 수 없다. 이는 교황청에서만 이 관면할 수 있다.

6. 수도 서원 장애

수도회에서 정결 종신 서원을 한 사람은 혼인할 수 없다. 수도 생활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교황청의 관면을 받을 수 있다.

7. 유괴 장애

유괴한 남자와 유괴한 여자 사이, 또는 결혼할 마음으로 여자를 유치시키고 있는 동안에는 혼인할 수 없다. 유괴 상태에서 풀려나 안전하고 자유로운 장소에 되돌아간 다음 여자가 자진하여 결혼을 원할 때에는 혼인할 수 있다.

8. 범죄 장애

혼인할 목적으로 상대방의 배우자를 죽였거나 자기 배우자를 죽였을 경우 그 사람과는 혼인할 수 없고, 물리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협력하여 배우자를 죽인 사람들도 서로 혼인할 수 없다.

9. 친족 장애

적출이건 비적출이건 피를 나눈 직계 친족간의 혼인은 무효다. 또한 친족의 방계 4촌, 즉 부계든 모계든 8촌까지는 서로 혼인할 수 없다.

10. 인척 장애

인척이란 결혼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으로 배우자의 직계와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결혼할 수 없다. 예컨대 죽은 아내의 딸이나 장모와 결혼할 수 없다.

11. 내연 관계 장애

유효한 혼인은 아니지만 동거 생활을 한 사람, 또는 축첩 관계를 맺은 사람은 상대방의 직계 혈족과 혼인할 수 없다.

12. 법정 친족 장애

양자 결연에 의해 법적으로 친족 관계가 성립되었을 경우 직계내에서는 친족에 관계없이 혼인할 수 없고, 방계에 있어서는 2촌(법정4촌)간에 혼인할 수 없다. 단 양자 결연이 파기 되었을 경우에는 장애가 풀린다.

13. 착오 장애

혼인을 하기로 약속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과의 혼인은 무효다. 사람의 품성에 대한 착오는 그것이 혼인 계약의 이유가 되었을지라도 이 품성이 직접적이고 주목적이 아니었을 경우 무효가 되지 않는다.

14. 협박 장애

신랑이나 신부가 부모나 타인에 의해 부당하게 협박을 당하여 억지로 혼인하였으면 무효다.

15. 혼인 형식 장애

가톨릭 신자간의 혼인이라도 본당 신부와 두 증인 앞에서 교회법이 요구하는 형식대로

하지 않는 혼인은 무효다.

16. 그 밖에 혼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

(1)이성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2)부부가 서로 주고받는 혼인의 본질적인 권리와 의무에 관해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

(3)심리적 백치기 때문에 혼인의 본질적 의무를 책임질 수 없는 사람

(4)상대방의 재물을 탐하여 혼인하려는 사람

준성사

성사에는 그리스도께서 설정하신 7성사 외에 교회가 설정한 준성사가 있다. 준성사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영신적이거나 현세적인 은혜를 받기 위해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는 행동이나 물건(성수, 성유 등) 사용을 말한다. 즉 성호를 긋거나 축성 축복을 받는 것 등이다.

여기서 축성과 봉헌 등은 성직자들만이 거행할 수 있으며 봉헌이나 축복으로서 경신례를 위해 지정된 거룩한 물건들은 경건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개인 소유로 되거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되어서도 안된다. 또한 축복은 우선적으로 가톨릭 신자들에게 베푸는 것이지만 예비 신자들에게도 베풀 수 있고, 교회가 금하지 않고, 본인이 거부하지 않는 한 가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베풀 수 있다.

교회법상 신자들의 의무

1) 미사 참례의 의무

십계명의 제 3계명에서도 밝혔듯이 모든 신자들은 주이로가 그에 준하는 대축일, 즉 예수 성탄, 예수 부활, 성모 승천, 에 중대한 이유가 없는 한, 미사에 참례하고 거룩하게 지내야 한다. (한국교회는 천주의 모친 성마리아 대축일(1.1) 포함) 주일은 기쁜날, 곧 예수의 부활 소 축제이므로 찬미와 감사와 봉헌의 정신으로 살아야한다. 따라서 주일 미사 참례의 의무는 짐이라기 보다는 기쁜 명령인 것이다.

이 의무는 가장 중요한 의무이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면제가 된다.

첫째, 수인, 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병자들 또는 성당이 없는 시골에 사는 사람들 또는 여행 중이라 성당을 찾기 힘든 경우.

둘째, 공무상 일요일에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 또는 단체 여행 중에 혼자 빠져 나오기 힘든 경우.

셋째, 집을 비워 둘 수 없는 경우 또는 환자를 간호해야 할 경우이지만 가족들이 많으면 서로서로 교대해서 미사에 참례해야 한다.

넷째, 완전한 자유가 없는 신분의 사람들, 외인 집안에서 일하고 있는 가정부나, 고용인들이 일요일에 빠져 나오지 못할 경우.

다섯째, 이웃 사람이 크게 재난을 당해 꼭 그것을 도와 주어야 할 경우.

주일 미사에 참례할 수 없을 때는 미사 참례 대신에 한국 주교단에서 가르치는 대로公所 예절이나 또는 주의 기도를 서른세 번 하면 주일 미사의 의무가 채워진다.

2) 재를 지켜야 할 의무

신자들은 금육과 단식으로 그리스도의 수난을 묵상하면서 자신을 억제하고 하느님께 희생을 바치며 절약된 재화를 가난한 이웃과 나누어야 한다.

(1) 금육제

금육제란 도덕적 영적인 향상을 위해 육식을 억제하는 덕으로서, 유대교에서는 육식을 금하는 날을 정했을 뿐 아니라 일상적인 육식에 있어서도 먹어서는 안 될 고기의 종류를 상세하게 적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신약 시대에 와서 폐지되고 다만 우상에게 바쳐서 더러워진 것과 목졸려 죽은 짐승의 고기와 피만을 금하고 있다.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초기부터 금육을 실천하였는데 예를 들면 이집트의 성 안토니오와 그 제자들은 빵, 물, 소금 이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오늘날까지도 많은 관상 수도회에서는 일년 내내, 또는 거의 일년 동안 금육을 한다. 이 가운데 최근까지 지켜지던 금육 재일은 재의

수요일, 사순절 중 금요일과 일요일, 사계의 재일, 어떤 축일의 전날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수난고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 금요일에 육식을 금하는 관습이 1세기부터 지켜져 내려오고 있다. 이전에는 이것이 일요일까지 확대되기도 하였다.

1966년 교황 비오 6세에 의해 공포된 교령은 금요일의 금육을 폐지하고 재의 수요일과 사순절 중 매주 금요일과 예수 수난날에 한하도록 밝히고 있다. 물론 이 교령의 의미가 금요일 금육재를 완전히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 폐지한 것이 아니라 금육을 하거나 그 대신 다른 선행을 행하거나 신자들이 선택하도록 한 것이다. 금육재 일에 신자들은 모든 육식을 금하나 계란과 우유와 육축의 기름으로 된 양념 등은 먹어도 상관이 없다.

현행 교회법상 금육은 육식을 금하는 것으로 사순절 동안 금요일마다 만 14세부터 죽을 때까지 지키도록 되어 있다. 단식은 한끼만 충분히 먹고 한끼는 완전히 금식하는 것으로 사순절이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과 예수 수난 성금요일에 만 21세부터 60세까지 지키도록 되어 있다.

(2) 단식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받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하며 죄와 욕정의 사슬을 끊고 자신을 완전하게 그리스도께 봉헌하기 위해 음식물의 양과 종류를 제한하는 행위를 단식재라고 하는데, 단식재는 구약 시대의 관습에서 유래되었다. 다니엘의 3주간 단식은 그것으로 하느님과 신비적인 대화를 나누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서의 성격이 있다.

속죄일에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단식하기도 하였다. 구약 시대의 단식은 상당히 엄격하였다. 속죄복을 입고, 목욕도 하지 않은 채, 재를 뒤집어 쓰고, 노동과 부부간의 동침도 금지되었다. 신약 성서에도 단식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다. 예수도 단식하였으며 나아가 장려하였다. 초대 교회에서는 속죄자들에게 엄격한 단식을 요구하였고, 세례 준비자들에게도 단식을 권장하였다. 그 뒤 단식재는 교회의 규정에 따라 모든 신자들이 재의 수요일, 사순절의 금요일과 토요일, 사계의 재일, 축일의 전날 등의 날에 단식재를 지켜야 했다. 이러한 단식으로 하느님에 대한 절약된 음식물을 가난한 이웃을 돕는데 사용되었다.

그러나 현대에 접어들면서 생활이 복잡해지고 단식재를 지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으므로 1966년 교황 바오로 6세는 단식 규정을 개정하였다. 즉 교황 헌장 ' 참회하시오 (Paenitemini)' 는 "단식은 그날 점심 한끼만 충분하게 하고 아침과 저녁에는 그 지방의 관습에 따라 음식의 양과 질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하여 단식의 법적인 의미만 남기고 "단식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규정은 각국의 주교 회의에 맡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따르면 전교회가 단식재를 지켜야 할 날은 재의 수요일과 성금요일이 된다. 이때에는 전세계 교회의 신자 중 21세 이상 60세이하의 모든 신자드은 각국 주교 회의의 규정에 따른 단식재를 지켜야 한다.

단식의 의무는 노약자나 임산부, 환자나 중노동에 종사하는 사람, 특별히 허락받은 사람들에게는 예외이며, 금육의 의무도 여행 중이거나 외출 중에 매식할 때는 면제된다. 그러나 금육과 단식은 의무라는 측면보다는 사랑과 희생의 성격이 강하다